

왕국이 임하다

누가복음 17:20-37

예수님은 언제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까요? 오늘 R.C. 스프로울은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를 이어가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경계하라고 주신 경고를 살펴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할 예정인데, 본문이 다소 긴 편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 20~37 절을 낭독할 것이며, 회중 여러분은 기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보시오' 또는 '저기 보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날 중 하나를보고 싶어 할 날이 올 것이지만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여기 봐라' 또는 '저기 봐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을 쫓아가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늘 아래 한 부분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 아래 다른 부분으로 비추는 것처럼 인자도 그분의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시대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아내를 맞이하고, 장가를 들었고, 홍수가 와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지었지만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모두 멸망했습니다. 인자가 계시되는 날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집 꼭대기에있는 사람과 그의 물건이 집안에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 가려고 내려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 밤에 한 침대에 두 남자가 있을 것이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갈아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 둘 것입니다. 두 남자가 들판에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은 잡혀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1세기 교회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긴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구세주의 입술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에 공의를 행할 능력이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호소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이해를 위해 비취주시고 우리 영혼에 머물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대중 연설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신학교의 설교학 수업에 참석하면 모든 대중 연설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규칙은 바로 연설하기 전에 청중에게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과하면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규칙을 깨고 이 글을 보기 전에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여러분이 곧 경험하게 될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호함을 남기지 않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솔직해지기 위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미리 사과를 드렸으니 낮잠을 자고 싶으시다면 제 허락을 받으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치 왕국이 아니다

20 절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고 물으시니 대답하시되..."라고 읽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언제?"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예수님 설교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또는 "저것과 같다"는 비유가 주님의 입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였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하느님 나라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하느님 나라는 관찰과 함께 임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를 보라' 또는 '저기를 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첫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대부분의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낼 군사적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대한 탱크가 대로변을 질주하고 강철 헬멧을 쓴 군인들이 뒤따르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탱크가 아니라 전차가 대로를 따라 내려오고, 그 뒤를 메시아가 이끄는 군단이 따라 내려와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 점령의 폭정에서 해방시키는 장면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라고 찾고 있던 정치적 메시아는 언제 오든 그 존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군대 대열이나 병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은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첫 부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왕국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실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인간의 내적 동기, 욕망,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에 내주하는 곳에는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16 세기 종교개혁 당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로마에 있는가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있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개신교는 "아니요,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왕국이 있는 곳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대한 대다수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왕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우리가 항상 불렀던 찬송은 "그는 살아있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죠: "나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섬기네, 그분은 오늘도 세상에 계시네."라는 가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시죠? 그분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사에 감동을 받았고 그 대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만 계신다면 내일 아침에는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제가 신약성경에서 읽은 예수님은 제 기억이나 감정,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내 마음이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특정 구절의 문제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헬라어 단어인 히모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일반적인 번역 중 하나는 "내"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에서 선택한 해석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입니다. 이 단어가 번역되는 다른 방식은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은 왕국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닐고 있을 때부터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친 것이다."

진짜 메시아를 그리워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중 하나를보고 싶어 할 날이 올 것이지만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여기 보라' 또는 '저기 보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을 쫓아가거나 따르지 마십시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출발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던 그 시절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닥불 옆에서 서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비된 사람을 고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밤을 잊을 수 있을까요? 골고다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그 자리에 계셨나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와서 '아, 그분은 여기 계시네' 또는 '아니, 그분은 저기 계시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30 대에 이 세상을 떠난 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AD 70 년까지 팔레스타인에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나무 담론의 다른 곳에서 경고하셨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에서 그분이 언급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우리 시대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개처럼

"하늘 아래 한 곳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 아래 다른 곳으로 비추는 것 같이 인자도 그분의 날에 있을 것입니다." 퀴즈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국에서 1년에 번개가 가장 많이 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플로리다 중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순식간에 번쩍이는 번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곳 플로리다 중부에서 번개를 몇 번이고 보셨고, 그것은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분의 재림이 지구를 가로질러 천천히 진행되는 점진적인 난기류가 아니라 번개처럼 번쩍이는 번개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한밤중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인자를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시대의 종말에 오실 것, 즉 그분의 왕국을 완성하실 때 승리의 마지막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거나 팔레스타인의 모든 도시를 지나기도 전에 같은 세기, 그 세대 안에 올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까? 후자라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로마 침략자들에 의해 포위되어 전멸 된 AD 70 년에 이스라엘에 닥친 압도적 인 심판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침공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땅의 정복은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마을 전체가 전멸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역사가 요세푸스 한 명뿐이었고, 그는 이 전투에 대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대장정은 로마에서 황제가 죽었다는 전갈이 왔을 때 중단되었습니다. 원로원은 후계자를 두고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로마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고,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로 돌아갔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인 멸망의 임무를 아들 티투스에게 넘겼고, 티투스는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진군시켜 성스러운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많은 군대가 올리브 산에 진을

쳤습니다. 몇 주 동안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추위가 심해지자 올리브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이 나무들은 보통 수령이 300~400 년 된 것들인데, 로마인들은 땀감을 구하기 위해 올리브 산을 완전히 베어버렸어요.

키가 5 피트 4 인치에 몸무게가 90 파운드에 불과한 한 남자가 워싱턴의 한 산림청에 벌목공이 되기 위해 지원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감독관은 그 작은 남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소장이 말했죠: "나무꾼이 되고 싶다고? 넌 너무 작아서 나무꾼이 될 수 없어. 어떤 경험이 있나?" 남자는 "사하라 숲에서 벌목공을 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사하라 숲이요? 사하라 사막은 사막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작은 남자는 "지금"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 안도감을 얻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모든 땅이 빼앗겼고, 그 전투에서 110 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1 세기 홀로코스트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역사상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구분이 영원히 지속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국가와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한 종파로 여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말에 오실 마지막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그(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시대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하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아내를 맞이하고 시집 장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엄청난 재앙이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임박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수년 동안 경고하고 홍수로부터 구출할 수단을 만들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삶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있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런 일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이와 같아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과 유황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신약성경에 불과 유황이 나옵니다.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돌아서지 마십시오

구절이 계속되면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 날에 집 꼭대기에 있고 그의 물건이 집안에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 가려고 내려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롯은 소돔을 떠나기 위해 더 이상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와 함께 떠났지만 망설였습니다. 집 꼭대기에있는 사람은 집에 물건이 있지만 너무 급해서 집에 내려가서 짐을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1993 년 암트랙 열차 회사는 역사상 최악의 사고를 겪었고, 이 사고로 인해 나머지 모든 암트랙 사고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앨라배마주 모바일 베이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플로리다로 향하던 선셋 리미티드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 물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열차를 움직이던 연료가 발화하면서 75 피트 높이의 화염 기둥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기차가 추락했을 때 저도 그 안에 있었고 베스타도 그 안에 있었어요. 베스타는 침대를 보호하는 그물망에 걸렸고 저는 벽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저는 이것이 심각한 사고라는 것을 알았지만 단순히 건널목에서 차에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75 피트 높이의 화염 기둥이 보였어요. 전기가 나가고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유조선을 들이받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베스타에게 "지금 당장 기차에서 내려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베스타는 "여보, 신발을 찾아야 해"라고 말했어요. 제가 말했죠: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신발은 잊어버려요. 지금 당장 이 기차에서 내려야 해요." "여보, 내 가방을 찾아야 해." "여행 가방은 잊어버려요. 지금 당장 내려야 해!" 우리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아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왜 우리가 그 순간 기차에서 내려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몰래 기차에 다시 올라타서 그녀의 여행 가방을 찾아서 꺼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어요. 다음 날 CNN 뉴스에 사람들이 기차에서 시신 가방을 꺼내는 사진이 나왔고, 완벽한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여행 가방을 들고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뉴스에 나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럴 때 베스타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서 거기서 나가세요. 목숨을 걸고 도망치세요."

어떤 이들은 탈출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탈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사람은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 밤에 한 침대에 두 남자가 있을 것이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갈아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두 남자가 들판에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잡혀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 본문을 휴거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합니다. 두 여자 중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 중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이것은 특정 종말론에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한 명은 탈출하고 한 명은 탈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령이 와서 침략군이 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팔레스타인이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그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적대적인 침략자가 국경을 넘으면 사람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피신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침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이 오면 산으로, 언덕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세기에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홀로코스트를 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도망쳤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로마인들에 의해 학살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산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독수리의 표징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언제입니까?"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버전에서 "독수리"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버전에서는 "독수리"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 모이지만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하면 독수리나 매가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독수리가 사체를 쪼아 먹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역은 "독수리가 시체 위를 맴도는 곳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물몬 목장에서 사냥을 하곤 했어요. 매년 가을이면 멧돼지, 사슴, 칠면조 사냥을 하러 내려가곤 했죠. 저는 캠프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웃곤 했어요. "제 차가 이곳의 문을 통과하자마자 독수리들이 잔치가 열릴 것을 알고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독수리들이 빙빙 도는 것을 보면 이 재앙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사슴 사냥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는 사슴을 쏘아서 사슴을 죽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사슴 사냥의 추악한 부분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슴 사냥꾼이라면 필요하다면 부상당한 동물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쫓아다닐 것입니다. 동물을 찾는 방법에 관한 기본 단서 중 하나는 땅을보고 피를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보고 버저드가 모이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준비하세요

이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매나 독수리가 맴도는 곳에서 파멸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독수리들이 모인 곳"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신약 학자들은 독수리에 대한 언급이 독수리의 상징을 가진 로마 군단의 집회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멸망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고 싶다면 독수리, 로마인을 주시하십시오.

나는 처음에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있고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공했으면하는 것은이 텍스트에 포함 된 옵션에 대한 일종의 정찰입니다. 어쨌든 서기 70 년의 멸망이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과 그분의 왕국의 완성을 언급하든, 한 가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처럼, 그분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상 최악의 날,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롯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